『中國學』第60輯 (2017.09)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7.60.60.4
pp.053-066 ISSN : 1229-9618

『虞初新志』 작품 속의 狂人 형상 연구

송경애*

【목 차】

1. 서론
2. 『虞初新志』 작품 속의 광인 형상
1) 호탕하고 자유분방한 인물
2) 권력과 禮法에 저항하는 인물
3) 技藝를 통한 자아추구
3. 『虞初新志』에 나타난 당시 지식인의 심리
1) 격변기의 복잡한 처세심리
2) 난세를 등지는 은일심리
3) 비분강개한 울분 심리
4. 결론

【초록】

마음에 품은 理想이 현실의 어려움으로 좌절되었을 때 이러한 마음은 광적인 분노와 현실에 대한 부정으로 표출된다. 명말청초 시기 격변기를 살았던 지식인들은 부패한 현실과 이민족의 침입으로 나라를 잃게 되자 시문과 술에 마음을 기탁하거나 광기 어린 행동들로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출하였다. 광적인 행동, 냉소적인 웃음과 애통한 울음 속에는 당시 지배계층에 대한 멸시와 조롱,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과 울분이 내재되어 있다. 명말 청초 문학가이자 출판가였던 張潮의 『虞初新志』는 명말청초 시기 문인들의 작품 150편을 수록한 작품집이다. 『우초신지』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 100여 편에 달하는데, 작품 속 인물들은 개성과 패기가 넘치고 거침이 없으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호탕함을 보여준다. 『우초신지』의 작품 속에 그려진 狂人 형상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호탕하고 자유분방한 인물, 둘째, 봉건적 예법을 거부하고 권력에 저항하는 인물, 셋째는 혼란한 사회 환경 속에서 기예를 통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추구했던 인물들이다. 수록된 작품을 통해 당시 지식인들의 심리세계도 엿볼 수 있다. 명청 왕조 교체기라는 정치적 격변기에 고민하던 지식인들의 복잡한 처세심리를 드러내기도 하고, 새로운 정권의 희생양이 될까 두려워서 자연에 은거하며 술과 사물에 마음을 의탁하며 정신적인 시름을 잊고자 하는 마음도 드러나 있다. 또한 자신의 처한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며 마음속의 울분을 표출해내기도 하였다.

【키워드】 우초신지, 장조, 광인, 명말청초, 인물형상

* 케이씨대학교 외국어학부 중국어과 (gonzummi@kcu.ac.kr)

1. 서론

狂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說文解字』에서는 “狂, 狾犬也”[1]라고 하였다. 본래의 뜻은 ‘미친개’라는 의미이다. 『辭海』에서는 더 나아가 “人瘋癲, 精神不正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람이 미쳐서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공자는 『논어·양화편』에서 狂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강직함을 좋아하나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狂妄함이다.”[2] 또한 『논어·자로편』에서는 “中行을 얻지 않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반드시 狂狷한 자와 사귀게 된다. 狂이라는 것은 함부로 나아가는 것이고, 狷이라는 것은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3]라고 말하였다. 공자는 이상적인 태도는 中行이며, 이러한 中行에 이르지 못하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狂이라고 설명했다. 狂은 그야말로 예법에 구속되지 않고 호방하고 거침없는 행동을 뜻하고 있다. 중국의 역대의 유명 문인들 중에는 행동방식과 문학작품에 있어서 일반 사람과 구별된 狂性을 지니고 있는데, 예를 들면 屈原, 阮籍, 嵇康, 李白, 杜甫, 徐渭, 李贄 등이다. 이들은 전통윤리와 禮敎의 위선을 부정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거침없고 유별나지만 결코 狂暴하지 않으며 현실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문학과 삶속에 표출해내었다. 晩明 시기에는 王學의 흥기로 程朱理學을 비판하고 개성과 性靈을 추구하는 문학사조가 유행하면서 문학에 있어서 狂性을 중시하였다. 李贄는 狂에 대해서 “狂이라는 것은 옛것을 답습하지 않고 옛 자취를 밟지 않으며 견식이 높은 것이다. 소위 봉황이 천길 높은 곳에서 비상하는 것을 일컫는다. 누가 능히 그것을 대적하겠는가?”[4]라고 하여 狂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며 강조하였다.

명말 청초 문학가이자 출판가였던 張潮의 『虞初新志』는 명말청초 시기 문인들의 작품 150편을 수록한 작품집이다. 張潮는 청대 順治年間 安徽省 歙縣에서 태어났다. 字는 山來이고 號는 心齋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虞初新志』, 『幽夢影』, 『昭代叢書』, 『壇几叢書』, 『心齋聊復集』, 『心齋雜俎』, 『尺牘偶存』, 『心齋詞』, 『詩幻』, 『奚囊寸錦』, 『花影詞』, 『尺牘友聲』, 『筆歌』, 『淸淚痕』, 『叢書三部』 등 약 40여 종이 있다. 장조의 『우초신지』는 중국의 虞初體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조선후기 사대부들 사이에서 폭넓게 읽혔다. 특히 『우초신지』에 수록된 작품 중 인물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 100여 편에 달하는데, 작품 속 인물들은 개성과 패기가 넘치고 거침이 없으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호탕함을 보여준다. 본고는 『우초신지』의 작품 속에 그려진 狂人 형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나타난 당시 지식인의 심리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狂, 狾犬也.” 許愼, 『說文解字注』, 天工書局, 1984, p.476.
2) “好剛而不好學, 其蔽也狂” 『論語全書』, 中國華僑出版社, 2013, p.250.
3) “不得中行而與之, 必也狂猖乎. 狂者進取, 狷者有所不爲也” 『論語全書』, 中國華僑出版社, 2013, p141.
4) “狂者不蹈故襲, 不踐往迹, 見識高矣. 所謂如鳳凰翔於千仞之上, 誰能當之” 李贄, 『續焚書』, 中華書局, 1975, p.27.

2.『虞初新志』 작품 속의 狂人 형상

1) 호탕하고 자유분방한 인물

중국 고대의 狂의 의미는 품은 뜻이 雄大하고 과감하며 적극적이라는 뜻이다.『우초신지』에 수록된 작품에는 호탕하고 행동에 거침이 없는 자유분방한 인물들이 다수 등장한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林四娘記」,「萬夫雄打虎傳」,「狗皮道士傳」,「大鐵椎傳」,「髯樵傳」 등이 있다.「임사낭기」에 나오는 진보약은 귀신도 무서워하지 않는 용감함을 보여준다. 진보약이 청주도 첨사로 부임한 뒤 밤마다 누군가 공문 서신함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된다. 밤중에 나타난 흉측한 귀신을 보고 奴僕들은 혼비백산하여 땅에 고꾸라졌지만 진보약은 도리어 귀신을 호되게 꾸짖는다. 귀신 임사낭은 진보약의 용맹함에 감탄하여 그를 도와서 지역의 미결된 사건들을 해결하고 훌륭한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진보약은 무서운 귀신과 맞서서 오히려 귀신을 감동시키고 귀신의 도움으로 억울한 사건들을 모두 해결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관리가 된다.[5]「만부웅타호전」에 나오는 만부웅은 담력이 넘치고 거침없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는 젊어서부터 힘이 세고 용맹하여 이름을 떨쳤는데, 하루는 막역한 친구 범씨와 산속을 걷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되고, 호랑이에게 잡혀간 친구를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호랑이와 싸운다. 오로지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도 돌보지 않고 세 마리의 호랑이와 싸웠던 만부웅의 용감한 행동은 감히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작가는 이러한 만부웅의 행적을 기록하며 世間의 우정에 대해 신랄하게 꼬집었다.

> 만부웅은 참으로 의로운 대장부구나! 나는 머리를 맞대고 바짝 붙어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그 사귐에 대해 형제처럼 가깝고 우정이 금석에 비할 만큼 견고하다고 말하지만 일단 위급한 일이 생기면 벌이나 전갈의 보잘 것 없는 독을 사용해서 적을 해치거나 죽이는 일도 하지 않는다. 어지러운 亂世를 만나면 오래전부터 어울리던 친구나 가까이 지내던 무리일지라도, 새들이 날아가고 구름이 흩어지듯이 종적을 감추며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을 만부웅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떠한가?[6]

작품 속에 그려진 만부웅의 모습은 비분강개한 기운이 넘치고 호방하여 결코 평범하지 않다. 비록 그가 村夫라서『詩經』,『書經』이 뭔지도 모르고 벗을 사귀는 도리도 모른다지만, 차마 친구 범씨를 저버리지 못하고 호랑이에게 덤벼드는 용기와 의리는 가히 칭송할 만하다.「狗皮道士傳」에 나오는 구피도사는 개의 가죽을 뒤집어쓴 사나이다. 모든 사람이 張獻忠을 만나면 두려워서 떨었지만 구피도사는 오히려 개 짖는 소리를 내며 장헌충을 농락했다.

---

5) 張潮,『虞初新志』 권5,「林四娘記」, 소명출판, 2011, p.135.

6) "萬夫雄亦誠烈丈夫哉. 余嘗見世之聚首而處者, 交同手足之親, 誼比金石之固, 設有緩急, 即蜂虿微毒, 不致貽禍殺人, 當其紛紛未定之時, 雖夙昔周旋, 密邇徒輩, 靡不潛迹匿形, 鳥飛雲散, 悄然而不一顧焉. 其視萬夫雄爲何如也夫." 張潮,『虞初新志』 권8,「萬夫雄打虎傳」, 앞의 책, p.190.

일 년 남짓 후에 장헌충이 침범하자 도사는 장헌충이 타고 온 말 앞으로 수십 걸음 다가서서 개 짖는 소리를 냈다. 장헌충은 노여워하며 역적들에게 말을 타고 가서 당장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도사는 천천히 걸어가고 역적들은 줄곧 말을 채찍질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장헌충은 더욱 화가 나서 화살을 쏘라고 명령했지만, 빗줄기 같이 많은 화살 중 하나도 명중하지 못했다. 장헌충은 크게 노하여 요물이라고 여기며 직접 말을 몰고 쫓아가서 화살로 도사를 명중시켰다. 그러나 도리어 화살이 튕겨져 나가 장헌충의 말에 꽂혀 말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 도사가 크게 개 짖는 소리는 내자 마치 수천 마리의 개가 짖는 것처럼 궁궐이 개 짖는 소리로 가득 찼다. 그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져 온 성안의 개들이 따라 짖어대니 개 짖는 소리가 하늘에 진동했다. 장헌충이 큰 소리로 불러도 사람들은 개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듣지 못했다. 장헌충은 몹시 놀라 물러났다. 그가 물러나자 개 짖는 소리도 멈췄다.[7]

장헌충은 李自成과 함께 명말 농민 반란군의 領袖로서 한때 60만 대군을 이끌 정도로 위세를 떨친 인물이다. 그는 지금의 武漢에 거점을 마련하고 스스로를 大西王으로 칭했다. 1646년 청나라 군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전사했으며, 무자비한 살육과 약탈을 저질러 당시 사람들은 그를 '屠夫'라고 불렀다. 잔인하고 포악한 장헌충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구피도사는 두려워하기는커녕 개 짖는 소리를 내며 오히려 장헌충을 두렵게 만들었다. 장조는 評語에서 "사람 가죽을 쓴 자는 장헌충에게 짖지 못했는데 개 가죽을 쓴 자는 오히려 그것을 했으니 사람이 개만도 못할 수 있구나!"[8]라고 하며 구피도사의 용맹함을 칭송하고 당시 지식인들을 비판했다. 「대철추전」의 대철추도 거침없는 호방한 성격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항상 쇠망치를 들고 다니며 강도들의 물건을 빼앗았는데, 작품 속에는 그의 호탕하고 용맹스런 성격과 자유분방한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대철추가 도적을 죽이는 장면을 실감나게 묘사한 한 대목을 살펴보자.

바야흐로 닭이 울고 달이 지고 별빛이 광야를 비추어 백 보 밖까지 사람이 훤히 보였다. 객이 달려가서 觱篥 몇 자락을 불었더니 잠시 후에 말을 탄 도적 20여명이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활을 메고 걸어서 이들을 따르는 사람도 100여명에 이르렀다. 도적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말을 타고 객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어찌하여 내 형을 죽였느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객이 '망치'라고 외쳤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도적은 말에서 굴러 떨어졌고 사람과 말이 모두 갈기갈기 찢어졌다. 도적들이 그를 에워싸며 다가오자 그는 조용히 망치를 휘둘렀는데 사방에 있던 도적들과 말이 땅에 고꾸라지며 30여명이 죽었다.[9]

---

7) "歲餘,獻賊入寇, 道士突至賊馬前數十步, 大作犬吠聲.獻賊怒, 令群賊策馬逐殺之. 道士故徐徐行, 賊數策馬, 馬不前. 獻賊益怒, 令飛飞矢射之, 如雨皆不中. 獻賊益大怒, 以爲妖, 親策馬射之, 中其首不入, 矢還中賊馬, 馬毙 …… 道士乃大作犬吠聲, 盈庭如數千百犬争吠狀, 聲彻四外. 合城之犬, 聞声從而和吠之, 聲震天地, 獻賊大聲呼, 衆皆不聞, 爲犬聲亂也. 獻賊大驚而退. 既退, 犬聲息." 張潮, 『虞初新志』 권10, 「狗皮道士傳」, 앞의 책, p.303.

8) "人皮者不能吠賊, 狗皮者反能之, 可以人而不如狗乎." 張潮, 『虞初新志』 권10, 「狗皮道士傳」, 앞의 책, p.305.

9) "時鷄鳴月落, 星光照曠野, 百步見人. 客馳下, 吹觱篥數聲. 頃之, 賊二十餘騎四面集, 步行負弓矢從者百許人. 一賊提刀縱馬奔客, 曰奈何殺吾兄. 言未畢, 客呼曰椎, 賊應聲落馬, 人馬盡裂. 衆賊環而進, 客從容揮椎, 人馬四面僕地下, 殺三十許人" 張潮, 『虞初新志』 권11, 「大鐵椎傳」, 앞의 책, p.53.

「대철추전」의 주인공 대철추는 손에 대철추, 즉 쇠망치를 들고 다녀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는 힘이 세고 識見도 뛰어났지만 자신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는 江湖에 두루 다니며 악한 자를 징벌하고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懷才不遇의 울분을 자신만의 독특한 행동으로 표출하였다. 吳肅公의 「五人傳」에 나오는 다섯 사람은 蘇州의 吏部 周順昌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며 魏忠賢의 포악함과 위협에 맞섰다. 작가는 "中朝의 사대부들이 모두 이 다섯 사람과 같았다면 시장과 조정에 시체가 널려 있는 일이 어찌 발생했겠는가? 다섯 사람의 이름이 온전히 전해져 義人이라 일컬어지니 사람의 도리를 지킨 자가 저들 사대부가 아니라 이들 다섯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10]라고 말하며 세상의 나약하고 어리석은 사대부들의 무능하고 나약함을 한탄했다. 顧彩의 「髯樵傳」에 나오는 나무꾼은 성격이 호탕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

> 털보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사람들이 하는 古今의 이야기 듣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그는 늘 위기에 격앙되어 시비를 다지는 말을 하곤 했는데, 그러면 유학자들도 반박하지 못했다. 한 번은 땔감을 메고 연극하는 곳에 가서 「정충전」을 보다가 진회가 등장하자 버럭 화를 내며 무대 위로 날아올라 진회를 쓰러뜨리고 두들겨 패서 피를 줄줄 흘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구해내자 털보가 말했다. '너는 승상이 되어서 이처럼 간사하니 때려죽이지 않고 무얼 기다리겠는가!' 사람들이 말했다. '이것은 연극이요. 저 사람은 진짜 진회가 아니란 말이요.' 털보가 대답했다. '연극인 줄 알았기 때문에 때리기만 한 거요. 진짜였으면 내 도끼에 죽었소.' 그의 강직하고 악인을 미워하는 성정이 이와 같았다.[11]

『우초신지』에 나오는 거침없고 호탕한 성격의 인물들은 행동이 다소 거칠고 경솔한 면도 있지만 그들은 귀신도 겁내지 않는 담력을 지니고 있으며, 의분에 격앙되면 자신의 안위보다 절개와 의로움을 위해 앞장섰다. 그들은 부패한 사회와 추악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부조리에 과감하게 맞서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권력과 禮法에 저항하는 인물

『우초신지』의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는 세상 물정에 어둡지만 오로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마음을 집중하는 狂人의 모습도 나타난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으며 구속이나 압박도 거부한다. 그들의 광기어린 웃음과 울음,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선 기이한 행동들은 일반 사람들의 눈에 광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 「魯顚傳」에 나오는 노전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는 항상 웃통을 벗고 홑겹의 옷을 입고 다니며 머리를 산발로 풀어헤치고

---

10) "向使中朝士大夫悉五人者, 則肆諸市朝何爲哉. 五人姓名具而人之, 無亦以人道之所存, 不於彼而於此歟" 張潮, 『虞初新志』 권6, 「五人傳」, 앞의 책, p.51.

11) "髯目不知書, 然好聽人談古今事, 常激於義, 出言辯是非, 儒者無以難,嘗 荷薪至演劇所, 觀精忠傳所謂秦檜者出, 髯怒, 飛躍上臺, 捽檜歐, 流血幾毙, 衆咸驚救, 髯曰若爲丞相, 奸似此, 不歐殺何待. 衆曰此戲也, 非真檜. 髯曰吾亦知戲, 故歐, 若真膏吾斧矣. 其性剛疾惡類如此." 張潮, 『虞初新志』 권8, 「髯樵傳」, 앞의 책, p.177.

맨발로 뛰어다닌다. 그가 하는 행동들은 모두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 있다.

> 노전은 술을 좋아했는데 코로 마실 수 있었다. 아이들은 노전이 코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싶어서 집에 술을 가져다주었다. 그는 술에 취하면 밤에는 다리나 성의 담장에 매달려 누운 채 코를 골며 잤다. …… 그가 목욕하는 것을 몰래 훔쳐보았더니 노전은 '후후' 거리면서 물속에 머리를 숙인 채 앞에 먼저 목욕한 사람의 때 국물을 마시고는 자기 때는 벗기지 않았다. 밤에 다리나 성의 담장을 찾지 못하면 선반에 발을 걸고 머리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잠을 잤다.[12]

코로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앞 사람이 목욕한 물을 마시는 행동, 거꾸로 매달려 자는 모습은 어느 것 하나 평범하지 않다. 장조는 評語에서 "세상 사람들은 노전에게 미쳤다고 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노전은 분명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여길 것이다. 그런즉 노전이 거꾸로 누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거꾸로 누운 것이라 해도 안 될 것은 없다."[13]라고 말하였다. 나라가 망하고 국토와 백성이 유린당하는 현실 속에서 그의 이러한 광적인 행동은 어쩌면 어지러운 세상에 대한 극도의 반항을 표출한 것일지도 모른다. 모든 현실을 거꾸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에 자는 것조차 거꾸로 매달려 자며 자신이 처한 사회적 현실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싶었을 것이다. 方亨咸의 「무풍자전」에 나오는 인물 武恬은 귀족 자제로 젊어서 학문을 익혔으나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술을 좋아하고 기예나 잡기에 능했는데 특히 젓가락에 불로 그림을 그리는 솜씨가 매우 뛰어났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젓가락을 팔아서 많은 이익을 얻게 해주었지만, 권세가들이 젓가락을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않았다.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그의 강직한 성격을 보여주는 한 대목을 살펴보자.

> 민간에서 그의 젓가락을 본 역적은 매우 기이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찾고자 여기저기 수소문했다. 그를 찾기 위해 현상금을 걸자 어떤 사람이 무생에게 와서 알려주었다. '어찌하여 나가서 부귀를 얻으려하지 않습니까?' 무생이 큰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내가 기이한 재주와 간교한 기교를 부려서 저 역적 놈들을 기쁘게 해줄 사람이요?' 정탐꾼이 이 말을 역적들에게 전하자 곧바로 무생을 잡아갔다. 무생은 잡혀가자 흰자위를 드러낸 채 하늘을 쳐다보며 입을 꼭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역적이 금과 비단을 늘어놓고 오른쪽에는 술상을 차려놓고 젓가락을 만들라고 회유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칼과 톱을 갖고 위협해도 역시 응하지 않았다. 역적은 화가 나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무생은 포박당한 채 저자거리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14]

方亨咸은 무생에 대해서 "그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狂人이다."라고 말했다.[15] 또한 장조도

---

12) "顚喜酒, 酒鼻飮. 群兒願觀顚鼻飮, 多就家索酒酒顚也. 夜倒懸橋梁或城女墻卧, 鼾鼾焉 …… .然殿人浴. 微窺之, 見顚方呼呼然, 俯水面飮前浴人垢, 不更去己垢也. 夜無橋梁城女墻, 則懸足架上, 垂首卧." 張潮, 『虞初新志』 권5, 「魯顚傳」, 앞의 책, p.330.

13) "世人謂顚爲顚, 吾知顚必以世人爲顚, 則謂顚非倒卧而世人爲倒卧, 亦無不可." 張潮, 『虞初新志』 권5, 「魯顚傳」, 앞의 책, p.332.

14) "賊於民見其箸, 異之, 遍召不得, 因懸賞索之. 或告曰曷出以圖富貴. 生大笑曰我豈作奇技淫巧以悅賊者耶. 偵者聞於賊, 系以来. 至則白眼仰天, 喑無一語. 賊命作箸, 列金帛於前, 設醇醪於右以誘之, 不應. 陳刀鋸以恐之, 亦不應. 賊怒, 揮斬之. 縛至市曹, 而神色自如, 終無一語." 張潮, 『虞初新志』 권2, 「武風子傳」, 앞의 책, p.134.

評語에서 “무생이 어찌 진짜 미친 사람이겠는가? 옛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여자를 가까이 하면서 자신의 불만과 답답한 심정을 기탁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16]라고 평가하였다. 무생은 性情이 강직하고 도리에 어긋나지 않아 탐관오리의 회유나 압력에 굴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가난하지만 권력을 멸시하는 작품 속 인물들의 태도와 성격은 바로 작가들이 갈망하는 이상적인 형상을 표현한 것으로, 부패한 권력에 대한 반항과 조소는 작가의 감정이 이입되어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技藝를 통한 자아추구

『우초신지』 작품 속의 인물들 중에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기예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도 한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들은 더 이상 이민족이 세운 청 왕조에서 功名에 뜻을 두지 않았으며 詩文이나 書畵, 技藝를 통해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분금자전」에 나오는 분금자는 인품이 호탕하고 재능이 뛰어났으나 관직에 나가지 못하고 거문고에 마음을 의탁하며 세상을 떠돌게 된다. 그는 어지러운 현실을 바라보며 “천하에 장차 난리가 날 것이고 나와 같은 사람 몇 명만 얻어 군사와 농경과 재정과 조세 등 중요한 정무를 맡긴다면 진압할 수 있을 텐데 어리석게도 저 젊은 서생들이 영웅을 곤궁하게 만들고 젖비린내 나는 어린 아이들이 조정에 나아가 고기를 먹고 있으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나는 장차 詩書를 불태우고 붓을 부러뜨려 다시는 글을 짓지 않으리라!”[17]라고 통탄했다. 그는 권력 앞에서도 아부하지 않고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였다.

> 한참 뒤에 어떤 장군이 변방에서 와서 민성에 주둔했는데 거문고를 좋아하여 후한 예를 갖추어 분금자를 모셔 와서 군영에서 연주하게 했다. 장군은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옆에 자리를 하나 마련하여 분금자에게 앉도록 했다. 그러자 분금자가 화난 얼굴로 장군을 보며 말했다. ‘저는 만권의 책을 두루 통달하였으나 명공께서는 단지 말 위에서 검과 창을 쓰는 법만 아시니 어찌 제가 門下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손님의 예로 대해주지 않고 옆자리의 모욕을 주십니까? 저는 거문고를 연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옷을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나가버렸다. 장군은 부끄러워하며 내려가 대등한 예로써 사죄하고 억지로 그를 붙잡았다. 그리하여 그는 윗자리에 앉아 거문고를 연주했다.[18]

---

15) “非病風者也, 狂人也.” 張潮, 『虞初新志』 권2, 「武風子傳」, 앞의 책, p.134.
16) “武生豈眞風子耶. 不過如昔人飮醇近婦, 以寄其牢騷抑郁之態.” 張潮, 『虞初新志』 권2, 「武風子傳」, 앞의 책, p.279.
17) “今天下將有變, 得如餘者數輩, 委以兵農財賦諸大政, 犹可鎭定. 顧乃郁郁以青衿子困英雄, 俾兒曹口臭者登廊庙而食肉, 誠何爲哉. 誠何爲哉. 余且燒其詩書, 絶筆不爲文矣. ”張潮, 『虞初新志』 권4, 「焚琴子傳」, 앞의 책, p.279.
18) “久之, 有將軍自滿洲來, 駐防閩省, 嗜琴, 厚禮延生, 使鼓琴於幕下. 將軍据上坐, 而置一座於旁, 命生坐. 生怒目視將軍曰, 吾博通萬卷書, 而明公唯知馬上用劍槊, 吾豈爲若門下士耶. 奈何不以賓禮見而屈於旁, 吾不能鼓琴矣. 奮衣径出, 不顧. 將軍慚, 下與抗禮謝罪, 强留之. 乃踞上坐爲一鼓琴.” 張潮, 『虞初新志』 권4, 「焚琴子傳」, 앞의 책, p.279.

분금자는 나라가 망하자 자신의 詩書를 모두 불태우고 더 이상 문장을 짓지 않았다. 그는 권세와 명예를 하찮게 여기고 세상에 대한 울분을 거문고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시켰다. 「湯琵琶傳」의 탕비파는 비파를 잘 타기로 유명하다. 아내를 잃고 미치광이처럼 방탕하게 살다가 변란이 일어나자 어머니를 모시고 병사들을 위해 비파를 연주하며 겨우 생활을 연명했다. 눈과 귀가 다 멀고 행색이 초라해지자 어느 누구도 그와 가까이 하려하지 않았다. 탕비파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을 알아주는 知音이 없음을 한탄했다. 작가는 초라한 탕비파의 모습을 통해 "아! 세상에 불우하여 밑바닥으로 전락한 채 知音이 없음을 한탄하는 자가 어찌 유독 湯君 뿐이겠는가!"[19]라고 말하여 당시 지식인들의 고통과 울분을 표출하였다. 毛奇齡의 「陳老蓮別傳」의 주인공 陳洪綬는 연꽃 그림을 잘 그려 스스로 老蓮이라고 불렀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그림을 그려주었으나, 그리기 싫으면 칼로 위협해도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20]

기예에 능한 작품 속 인물들은 대부분 원래는 학문을 익히는 유생이었으나 명 왕조가 멸망하여 난세에 이르자 理想을 포기하고 서화와 거문고, 비파 등 기예를 통해 자아를 표현하고 삶의 가치를 찾고자했으며 예술에 대한 狂氣로 세상을 조롱했던 인물들이다. 현실과 운명에 대한 좌절감과 우울함은 때로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문인들은 技藝를 통해 자신의 내적 고뇌를 표출하게 된다. 그들의 일생은 파란만장하고 인생의 고뇌가 가득하다. 명말청초 시기는 온갖 기예가 발달하여 기예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서 藝人들의 예술적 소양과 능력이 높이 평가 받았다. 이들은 당시 난세에 明哲保身하여 화를 면할 수 있었으며 기예에 심취함으로써 마음속에 있는 울분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

3. 『虞初新志』에 나타난 당시 지식인의 심리

작가가 처한 시대적 현실과 개인적인 경험은 문학작품에 투영된다. 『우초신지』는 명말청초 격변기에 살았던 문인들의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다.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명말 충신들의 사적을 기록하거나 전란 속에 겪게 되는 망국의 시련과 고통을 표현하며 어두운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과 좌절을 나타내었다. 『우초신지』에 수록된 작품 속에 나타난 당시 지식인들의 심리는 어떠하였는지 살펴보자.

1) 격변기의 복잡한 처세심리

명말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부패는 결국 명조의 멸망을 가져왔고 이민족의 침입으로 청 왕조가 들어서면서 지식인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명청 왕조 교체기 문인 사대부가 직면한 현실적인 고통과 충격은 아마도 역대 왕조 교체기보다 더욱 심했

19) "嗚呼. 世之淪落不偶而嘆息於知音者, 獨君也乎哉." 張潮, 『虞初新志』 권1, 「湯琵琶傳』, 앞의 책, p.85.
20) 張潮, 『虞初新志』 권13, 「陳老蓮別傳」, 앞의 책, pp.190-191.

을 것이다. 한족 지식인들로서는 이민족이 中原을 통치하는 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우초신지』의 작품 속에 나타난 광인 형상은 당시 지식인들이 처한 역사적 특수성과 관련이 있다. 우초신지에 수록된 작품의 작가들은 대부분 명말 청초 시기에 활동했던 문인들로 사회적 혼란과 봉건제도의 부패, 이민족의 침입과 신구 왕조의 교체를 몸소 체험했다. 그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며 작품을 통해 자신의 복잡하고 모순된 심리를 표출하였다. 陳鼎은 「王義士傳」에서 왕씨 부부의 의로운 행동과 명 왕조에 대한 충절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徐士俊은 「汪十四傳」에서 豪俠 왕십사의 행적을 통해 亂世에 거침없는 행동으로 세상을 조롱했던 狂人의 형상을 표현하였다.

사회적 불안과 궁핍한 현실의 생존 환경은 지식인들로 하여금 붓을 들어 자신의 심적인 고난과 울분을 표현하게 했다. 작품 속에 나타난 인물들의 독특한 행동과 울고 웃기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감정 상태는 바로 당시 지식인들의 정신적 세계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그들은 청의 통치에 저항하며 자신의 절개를 굽히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였다. 「魯顚傳」의 작가 朱一是는 淸朝가 들어서자 벼슬을 마다하고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면서 자신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고, 黃周星은 대표적인 명말 遺民으로 자연에 은거하며 멸망한 명 왕조를 그리워하였다. 그는 옳지 않은 말과 행동을 보면 마구 욕설을 퍼붓거나 명이 멸망하고 난 후에는 문 밖 출입을 삼가고 거의 말을 하지 않는 등 독특한 행동을 보였으며, 끝내는 자신이 직접 묘지명을 쓰고 자살했다. 이밖에도 徐芳, 陳鼎, 王猷定, 魏憙 등은 모두 청 왕조가 들어선 후 관직에 나가지 않고 은거하며 지냈다. 嚴首昇은 명 숭정시기 관료로 시문에 능하였는데, 청대에 들어서자 삭발하고 불가에 귀의했다.

작가들은 작품 속 등장인물을 통해 자신의 복잡한 심리를 반영하였다. 진정의 「팔대산인전」에 나오는 팔대산인은 기이하고 독특한 행동 속에 마음속의 비분을 표현하였고, 주량공의 「유주전」에 나오는 狂人 유주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그림을 그려주지만 당시 권세가에게는 그림을 그려주지 않았다. 주량공의 또 다른 작품인 「書姜次生印章前」에 나오는 姜次生은 명나라가 망한 이후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오로지 술에 빠져 살았다. 강차생은 "술 마시는 것 이외에는 오로지 도장 새기는 일만 마음에 두었다. 그는 술을 마시면 취했고, 취하면 원나라 사람이 지은 「會稽太守詞」를 읊으며 슬피 울었다."[21]라고 기록되어 있다. 魏憙의 「姜貞毅先生傳」에 나오는 주인공 姜埰는 실존 인물로 청 왕조가 들어서자 승복을 입고 世人들을 멀리하며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또한 그는 두 아들에게도 결코 청 왕조를 위해 벼슬을 하지 말라고 가르침으로써 명 왕조에 대한 절개를 지켰다. 강채의 명성을 전해들은 山東巡撫가 그를 불러들이자 그는 일부로 낙마해서 자신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의원을 불러와 실려 간 후에 야반도주하였다.[22] 「金忠潔公傳」도 또한 절개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金鉉의 충절을 기록한 작품이다. 이처럼 『우초신지』의 작품 속에는 명청 교체기에 나라를 잃은 설움과 회한, 울분 등 당시 지식인들의 복잡한 처세 심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

21) "酒外唯寄意圖章, 得酒輒醉, 醉輒鳴鳴歌元人会稽太守词" 張潮, 『虞初新志』 권15, 「書姜次生印章傳」, 앞의 책, p.334.

22) 張潮, 『虞初新志』 권1, 「姜貞毅先生傳」, 앞의 책, pp.35-36.

2) 난세를 등지는 은일 심리

명청 왕조교체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이전 시기 왕조교체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혼란한 시기에 명 왕조에 대한 회상과 청 왕조에 대한 불만은 망국의 비통한 심정을 더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속세를 떠나 자연에 은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朱一是의 「花隱道人傳」에 나오는 화은도인은 "기이한 책을 읽고 문자에 얽매이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으로 고금의 일을 판단할 수 있었다. 유생의 관을 훔쳐 쓰고도 눈이 우매한 이들을 보면 내치고 그런 자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부끄러워하였다."[23] 화은도인은 의협심이 많고 재물을 하찮게 여겼으나 세상이 혼탁해지자 온전히 국화 키우는 일에 마음을 의탁했다. 張潮는 評語에서 "자고로 꽃 속에 묻혀 은거하는 자는 대부분 뜻과 행동이 고결한 선비이거나 풍류 인사였는데 국화는 특히 은자와 잘 어울린다."[24]라고 평하였다. 화은도인은 난세에 때어나 어찌할 수 없어 은일을 선택했다. 그는 은거하면서 생명과 정신의 안정을 위해 꽃에 자신의 마음을 의탁하였다. 작품에서는 화은도인의 은거하는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변란을 당하여 장년에 뜻이 꺾이고 정처 없이 떠도는 고달픈 신세를 생각하니,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고 싶지 않았다. 그리하여 黃子湖 주변에 집을 짓고 생선이나 고기를 즐기던 평소의 습관을 버리고 커다란 베옷을 입고 대나무 껍질로 만든 모자를 쓰고 짚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으며 울타리 사이를 다녔다. 어부나 목동을 붙잡고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셨다 하면 취하여 호숫가에서 크게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호수 물도 따라 끓어올랐다. 마치 마음 속 불편을 소리 내어 우는 것 같았다.[25]

화은도인은 혼탁한 세상을 등지고 자연에 귀의하고자 했으나 그가 어부와 목동을 붙잡고 마시는 술은 심적인 고통과 좌절을 잊기 위함이었다. 작가 朱一是는 "그러면 호수 물도 따라 끓어올랐다. 마치 마음 속 불편을 소리 내어 우는 것 같았다."라고 하여 끓어오르는 호수의 물을 통해 화은도인의 내면의 감정을 빗대어 표현하였다. 洪嘉植의 「耕雲子傳」에서 경운자는 秦 땅 지역 사람으로 서쪽에서 은거하며 지냈다.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경운자는 도를 지니고 숨어사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은거하는 군자가 아니겠는가?"[26]라고 하였다. 홍가직은 文尾에서 "그는 하늘을 거스를 수 없어서 결국 깨끗하게 세상을 피해 은거하는 것이다. 봉황이 가시나무에 깃들자 메추라기와 참새가 조롱하고 神龍은 깊은 못에 잠겨 있어도 결국 九州에 비를 내릴 수 있다."[27]라고 하여 혼탁한 세상을 등지고

---

23) "顧讀異書, 不喜沾沾行墨, 能以己意斷古今事. 見世竊儒冠目瞶瞶然者, 棄去羞與伍." 張潮, 『虞初新志』 권5, 「花隱道人傳」, 앞의 책, p.354.

24) "從來隱於花者, 類多高人韻士, 而菊則尤與隱者相宜. 妙在全不蹈袭淵明只字, 所以爲高." 張潮, 『虞初新志』 권5, 「花隱道人傳」, 앞의 책, p.353.

25) "然道人是時感念深矣. 自以遭時變亂, 年壯志摧, 流離困折, 無復風尘馳驟之思. 乃築室黃子湖中, 棄其鮮肥素習, 衣大布衣, 鋒冠草履, 曳杖籬落間. 挽渔父牧兒與飲, 飲輒醉, 放歌湖濱, 湖水爲沸揚, 似鳴不平者." 張潮, 『虞初新志』 권5, 「花隱道人傳」, 앞의 책, p.353.

26) "耕雲子有道人也. 龍蛇其身者也. 人莫知其所自來, 其隱君子邪." 張潮, 『虞初新志』 권8, 「耕雲子傳」, 앞의 책, p.145.

살았던 은자로서의 삶을 칭송했다.

『우초신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일표도인, 화은도인, 애철도인, 구피도사, 팔대산인 등은 모두 주인공의 심정을 드러낸 별칭이다. 그들은 입신양명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神仙術이나 道敎에서 삶의 해답을 찾거나 자신 나름의 독특하고 광적인 행동으로 세상을 멸시하고 조롱하였다. 진정의 「雌雌兒傳」에 나오는 자자아는 명대 崇禎年間의 孝廉이었으나 후에 道士가 되었다. 허리에 동전만한 굵기에 5촌밖에 안 되는 길이의 죽통 세 개를 차고 다녔는데, 죽통에서는 온갖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었다. 外史氏는 그에 대해 "자자아는 고상한 선비로서 幻術을 부리며 세상을 피해 살았으나 끝내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여 여러 차례 내침을 당한 끝에 마침내 깊은 산에 은둔했다. 아! 난세에 태어난 선비는 길조차 막히는 구나!"[28]라고 하며 당시 지식인의 불운한 삶을 한탄하였다. 지식인들의 은일 심리는 정치적 부패와 사회적 혼란이 초래한 것이다. 그들은 난세를 피하여 숨어살면서 절개를 지키고 세속적인 가치를 부정하며 정신적인 안정과 위안을 얻으려 하였다.

3) 비분강개한 울분 심리

명말청초 지식인들은 시문과 술 그리고 자연에 의지하며 삶의 가치와 즐거움을 찾고자 했으나 그 내면에는 고독감과 울분, 망국의 한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관직에 나가서 나라에 충성하겠다는 웅대한 삶의 목표가 사라지자 자신의 처한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며 마음속의 울분을 표출해내었다. 주량공의 「八大山人傳」에 나오는 팔대산인의 호는 人屋이다. 명이 망하자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며 청조에 저항하였다. 작품에서는 팔대산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甲申年에 명나라가 망하자 그의 부친도 자결했다. 인옥도 부친의 뜻을 받들어 입을 다물었다. 그래서 옆에서 시중드는 사람들이 눈으로 말을 하면 인옥은 자기 뜻과 맞으면 머리를 끄덕였고, 맞지 않으면 머리를 흔들었다. 손님을 대할 때도 손짓으로 말을 했는데, 간혹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금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 마음에 흡족한 말이라도 하면 말없이 웃었다. 십년 정도 이렇게 지내다가 끝내는 출가해서 스님이 되고 스스로를 雪個라고 불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치광이 병에 걸렸는데 처음에는 땅에 엎드려 오열하다가 잠시 후에는 갑자기 하늘을 보며 크게 웃었다. 웃음이 그치면 갑자기 펄쩍펄쩍 뛰면서 울부짖으며 통곡했다. 어떤 때는 배를 두드리며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어떤 때는 저자거리에서 되는대로 춤을 추는 등 하루 동안 온갖 미치광이 짓을 다 보여주었다.[29]

---

27) "顧天有不可逆者, 而終皭然長往矣. 鳳集於棘, 鷃雀調之, 神龍潛乎深淵, 終能雨此九土也." 張潮, 『虞初新志』 권8, 「耕雲子傳」, 앞의 책, p.145.

28) "雌雌兒高士也. 以幻術避世, 而世卒不容, 屢遭斥逐, 遁深山. 嗚呼. 士生亂世, 道亦窮矣." 張潮, 『虞初新志』 권9, 「雌雌兒傳」, 앞의 책, p.236.

29) "甲申國亡, 父隨卒. 人屋承父志, 亦喑啞. 左右承事者, 皆語以目. 合則頷之, 否則搖頭. 对賓客寒暄以手, 聽人言古今事, 心會處, 則啞然笑. 如是十餘年, 遂棄家爲僧, 自號曰雪個个. 未幾病顚, 初則伏地嗚咽, 已而仰天大笑, 笑已, 忽跓跔踊躍, 叫號痛哭. 或鼓腹高歌, 或混舞於市, 一日之間, 顚態百出." 張潮, 『虞初新志』 권11, 「八大山人傳」, 앞의 책, p.27.

나라를 잃은 설움으로 그는 佛家에 귀의하였고 후에는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울고 웃기를 반복하며 미치광이 행세를 하였다. 嚴首升의 「一瓢子傳」에 나오는 일표도인도 젊어서는 학문에 전념했으나 관직을 포기하고 술과 그림을 통해 울분을 표출하였다. 일표도인은 "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다녔다. 筇竹杖에 표주박을 매달고 鄂渚 사이를 떠돌았다. 길에서 노래 부르며 온갖 욕설을 하며 여러 가지 새소리를 흉내 냈다. 아이들이랑 장난치고 몰려다니며 욕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그러나 정신은 멀쩡했으며 이상한 생김새에 덥수룩하게 수염이 나있었다."[30] 毛際可의 「李匀傳」의 거지 이씨는 원래는 諸生이었으나 관직에 뜻을 접고 미친 척 하며 거지 행세를 했다.

> 몸에는 달랑 표주박 하나만 들고 다닐 뿐 다른 물건은 없었다. 매번 소고기나 돼지기름을 구걸하기도 하고 쥐를 잡아 날것으로 먹기도 했다. 남은 음식은 다 떨어진 웃옷 안에 넣어두었는데 한여름에도 맛이나 색깔이 변하지 않았다. …… 군승 아무개가 그에게 가벼운 갈옷과 무늬 신발을 주었더니 그는 머리 가득 꽃을 꽂고 미친 척 시장을 돌아다녔다.[31]

일표도인과 거지 이씨의 언행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부정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과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이 처한 사회의 현실을 부정하고자 했다.

당시 지식인들의 마음속의 울분은 미치광이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협객이 나타나 난세를 평정해주기를 바라는 적극적인 마음도 표현되었다. 张潮는 『幽夢影』에서 "가슴속의 불평은 술로 풀 수 있으나 세상의 커다란 불평은 劍이 아니고서는 풀 수 없다."라고 말했다.[32] 왕사정의 「劍俠傳」은 도적을 만나 가진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검객이 나타나 사건을 해결해준다는 내용이다. 張潮는 評語에서 "내 일찍이 中山狼을 만났는데 지금 세상에는 찾아가 하소연할 검객이 없음을 한탄했었다. 지금 이 글을 읽어보니 세상에 아직 異人이 있기는 있구나. 다만 나와 인연이 있을지 모르겠다."[33]라고 말했다. 협객은 곤경에 처한 일반 백성들이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현실속의 부조리와 억울함을 협객이 나와서 대신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더 나아가 난세를 평정할 영웅이 나타나기를 바랐다. 당시 지식인들은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희망이 사라지자 술과 기예 혹은 광적인 언행들을 통해 懷才不遇의 고민과 울분을 표출하거나 작품 속 협객들의 불의를 평정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비분강개한 심정을 표현하였다.

---

30) "性嗜酒, 善畵龍, 敝衣蓬跣, 担筇竹杖, 掛一瓢, 游鄂渚間, 行歌漫罵, 學百鳥語, 弄群兒聚詬以爲樂. 顧其神明映彻, 怪准奇顔, 髯疏疏起" 張潮, 『虞初新志』 권3, 「一瓢子傳」, 앞의 책, p.225.

31) "随身一瓢外無長物.每乞牛肉彘膏. 并捕鼠生啖之. 余納諸敗袄中. 盛暑色味不變 …… 郡丞與以輕葛文舄.插花满頭.徜徉過市" 張潮, 『虞初新志』 권15, 「李丐傳」, 앞의 책, p.290.

32) "胸中小不平, 可以酒消之. 世間大不平, 非劍不能消之." 張潮, 『幽夢影』, 江蘇古籍出版社, 2001.

33) "予嘗遇中山狼, 恨今世無劍俠, 一往愬之. 讀此乃知尚有異人, 第不識於我有緣否也." 張潮, 『虞初新志』 권9, 「劍俠傳」, 앞의 책, p.197.

4. 결론

마음에 품은 理想이 현실의 어려움으로 좌절되었을 때 이러한 마음은 광적인 분노와 현실에 대한 부정으로 표출된다. 명말청초 시기 격변기를 살았던 지식인들은 부패한 현실과 이민족의 침입으로 나라를 잃게 되자 시문과 술에 마음을 기탁하거나 광기 어린 행동들로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출하였다. 광적인 행동, 냉소적인 웃음과 애통한 울음 속에는 당시 지배계층에 대한 멸시와 조롱,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과 울분이 내재되어 있다. 지식인들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 내심의 고통을 표현하고 그 속에서 심리적인 균형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狂은 인간의 영혼과 감정이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되는 것이다. 사회적 규범과 예교에 맞서는 의미이기도 하다. 봉건 지배계층은 정치적 권력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이러한 狂性을 이단이라고 여기며 배척해왔다. 그러나 진보 사상을 가진 만명 시기 학자와 문인들은 狂性은 문학창작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장조의『우초신지』는 明末의 事迹을 기록한 작품이 전체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고, 청대 초기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삼분의 이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 20여 편은 청대 강희년간의 사적과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다.『우초신지』 작품 속의 광인 형상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호탕하고 자유분방한 인물, 둘째, 봉건적 예법을 거부하고 권력에 저항하는 자아고수형 인물, 셋째는 혼란한 사회 환경 속에서 기예를 통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추구했던 인물들이다.『우초신지』에 수록된 작품을 통해 당시 지식인들의 심리세계도 엿볼 수 있는데,명말 청초 시기 지식인들은 정치적 이상이 좌절되고 이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긴 울분과 회한 속에 생활하였다. 명청 왕조 교체기라는 정치적 격변기에 고민하던 지식인들의 복잡한 처세심리를 드러내기도 하고 새로운 정권의 희생양이 될까 두려워서 자연에 은거하며 술과 사물에 마음을 의탁하며 정신적인 시름을 잊고자 하는 마음도 드러나 있다. 또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며 마음속의 울분을 표출해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張　潮,『虞初新志』, 소명출판, 2011.
張　潮,『幽夢影』, 江蘇古籍出版社, 2001.
許　愼,『說文解字注』, 天工書局, 1984.
李　贄,『續焚書』, 中華書局, 1975.
『論語全書』, 中國華僑出版社, 2013.
王恒展,「奇人奇技奇懷」,『中國文言小說硏究』, 2014.
劉和文,「文多時賢, 事多近代」,『明淸小說硏究』, 第2期, 2005.
陸學松,「虞初新志中傳記文硏究」,『揚州職業大學學報』, 第19卷, 2015.
宋景愛,『張潮硏究』, 北京大學博士論文, 2007.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虞初新志, 张潮, 狂人, 人物形象, 明末清初
	영문	*YuChuXinZhi*, Zhang Chao, Lunatic, Character image,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dynasty

Study on the lunatic image in *YuChuXinZhi*

Song, Kyung-Ae

When ideals are frustrated with the difficulties of reality, this mind is expressed as a negative fit for madness and reality. Intellectuals who used to live a turbulent period, during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dynasties- expressed their inner world by resorting to poetry and drink, and with insanity when he lost his country due to corrupt reality and racial invasion. There is a feeling of pessimism, cynical laughter and mourning, and the contempt of the ruling elite and the despair and frustration of the situation.

YuChuXinZhi written by ZhangChao, who was a literary writer and publisher, contains 150 pieces of works from writers in the early days of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dynasty. In *YuChuXinZhi*, there are more than 100 artworks of work, the characters in the works show character and spirit, ambition, and magnanimity that defies compromise with the world.

If you look at the superhero portayed in *YuChuXinZhi*, you can split it into three groups. First, the person who is liberal and freewheeling, second, a person who refuses to deal with feudal proprieties and resists authority, Third is the person who pursued the value of his life through art and craft in a chaotic social environment. Through the works, we can see the psychology of intellectuals at the time.

A complex knowledge of intellectuals who sufferd from the political upheaval of the Ming Qing dynasty, the seclusion of their lives to seek asylum in nature and to devote their minds to the spirits of drinks and objects, they acted like a madman to deny their own reality and expressed their anger in the heart of them.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송경애 / 宋景愛 / Song, Kyung-Ae		
	소 속	케이씨대학교 외국어학부 중국어과		
	Em@il	gonzummi@kcu.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7년 07월 31일	심 사 일	2017년 09월 08일
	수 정 일	2017년 09월 15일	게재확정일	2017년 09월 25일